

# “이기는 결과 얻는 것이 중요”

여자축구 벨 감독, 7·11일 잠비아와 평가전 앞두고  
“두 경기 통해 다양한 전술 확인·조직력 다질 것”

2023년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의 폴린 벨 감독(사진)이 잠비아와의 두 차례 평가전에서 이기는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소집된 여자대표팀은 5일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잠비아와의 평가전을 대비한 훈련을 이어갔다.

대표팀은 7일(수원월드컵경기장), 11일(용인미르스타디움) 두 차례 잠비아와 평가전을 치른다.

벨 감독은 훈련 전 취재진과 만나 “잠비아전은 이기는 게 중요하다. 또 두 경기를 통해 다양한 전술을 확인하고 조직력을 다질 것”이라며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에서 결과를 가져와서 자신감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자축구는 2015년 캐나다 대회에서 16강에 올랐지만, 2019년 프랑스 대회에선 조별리그 3전 전패로 탈락했다. 벨 감독은 “2019년 월드컵에서 실패

했다기보다 3경기 승리를 가져오는데 실패했다고 보는 게 옳다”며 “당시 한국은 상대적으로 강한 프랑스, 노르웨이, 나이지리아와 한 조였다. 이런 강팀들과 같은 조에 있으면 조별리그 통과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선수들에게 지난 대회 16강 실패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당시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대회에 나서지 못한 선수들이 지금 많다. 4년 동안 선수들은 자신감과 유연성을 갖게 됐고, 속도와 체력도 나아졌다”고 강조했다.

6월부터 합숙 훈련에 나서는 벨 감독은 그때까지 체력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부임 후 계속해서 전달한 메시지는 체력 단련에 관한 것이었다. 냉정히 우리 선수들은 아직 국제적으로 최고 레벨은 아니다.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WK리그 구단들과 선수들에게도 이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수들이 레벨 5 정도로 온다면 월드컵에서 승리할 확률이 떨어진다”고 했다.

벨 감독은 구단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대표팀은 선수들의 소속 구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구단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널드클라크에게 가기 전 울산에서 피지컬 테스트를 했고 이번 소집 첫 날에도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개선됐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선수들이 6월까지 개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 선수들은 기술적으로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다. 강한 선수들로 구성돼 있고 전술적인 유연성도 갖췄다. 여기에 체력이 더 향상된

다면 감정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안 부상으로 이탈했다가 9개월 만에 대표팀에 돌아온 베테랑 미드필더 조소현(토트넘)에 대해선 “팀에 중요한 선수고 필요한 선수다. 미드필드에서 역동성을 줄 수 있다. 침투나 전진 플레이가 좋다고 했다.

이어 “팀에 다시 녹아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제 합류해서 적응하는 걸 보니 걱정되진 않는다. 조소현이 돌아와서 행복하다”며 웃었다.

발목 부상으로 이날 훈련에 불참한 지소연(수원FC)에 대해선 걱정 어린 시선을 보였다.

벨 감독은 “발목 부상 문제가 있다. 잠비아와 2연전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 지켜봐야 한다”며 “8일 소집 때부터는 지소연이 건강하게 합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벨 감독은 한국 팬들의 응원이 여자대표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자대표팀과 우루과이의 경기를 관전했는데, 당시 팬들이 열광적으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게 느껴졌다. 그 열정을 여자축구에도 가져오고 싶다”고 했다. /뉴시스



전주시축구협회 산하 여성풋살팀 FS힙결이 '2023 청주피닉스 전국여성풋살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기뻐하고 있다.

## ‘전주관 골때리는 그녀들’ FS힙결, 전국 최정상 등급

전주시 축구협회 산하 여성 풋살대표팀  
2023 청주피닉스 전국대회서 우승 차지

전주시는 전주시축구협회(회장 조윤기) 산하 여성풋살팀(FS힙결)이 2023 청주피닉스 전국여성풋살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전주시 축구협회와 풋살협회에서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총 24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리그 및 토너먼트 형식으로 치러졌다.

신주희 선수를 비롯한 13명이 출전한 전주시 여성풋살팀은 평택오닝FS를 꺾고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여성풋살팀 소속 윤하은 선수는 MVP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21년 창단된 전주시축구협회 산하의 여성 풋살팀 FS힙결은 현재 24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 대회에 앞서 익산시장애인 풋살대회에서도 우승하는 등 꾸준한 기량을 뽐내고 있다.

박승재 감독은 “그동안 애써준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최선을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배지환, MLB 첫 홈런 피츠버그 승리 견인

보스턴전 4대 1로 승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는 배지환(24)이 빅리그 첫 홈런포를 가동해 팀에 승리를 안겼다. 배지환은 5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2023 MLB 보스턴 레드삭스와 경기에서 8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해 마수같이 홈런을 기록했다.

2회 2사, 케이던 스미스는지바가 7구 승부 끝에 스트라이크 아웃 포일로 출루해 1루에 안착했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배지환이 1스트라이크 1볼 상황에서 3구 시속 153km 패스트볼을 타격해 좌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다음 타자 하이네만이 볼넷으로 출루했지만, 오닐 크루즈가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공격을 마쳤다.

3회 공격에서 브라이언 레이놀즈가 중월 솔로 홈런을 때리면서 피츠버그가 3-1로 리드를 이어갔다.

피츠버그는 4회초 공격에서 배지환이 3구 삼진으로 돌아서 삼자범퇴로



피츠버그 파이리츠 배지환(오른쪽)이 5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2023 MLB 보스턴 레드삭스와 경기에서 8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전해 2점 홈런을 기록한 뒤 팀 동료의 축하를 받고 있다.

이닝을 마쳤다. 7회 선두타자로 나선 배지환은 5구째 슬라이더를 받아쳤지만 땅볼로 돌아갔다.

8회 수비에서 배지환은 2루수에서 중견수로 자리를 옮겼다. 자리를 옮긴 배지환은 보스턴의 8회 공격에서 두 타자의 타구를 잡아냈다. 특히 라파엘

데버스가 담장을 향하는 안타성 타구를 날렸지만, 몸을 날린 배지환의 호수비로 팀은 아웃카운트를 늘렸다.

9회 공격 선두타자로 나선 배지환은 7구 승부 끝에 몸쪽 높은 패스트볼에 배트를 내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이날 5번 지명타자로 출전한 최지만은 2회 땅볼 아웃, 3회 직선타로 안타

를 만들지 못했다. 이어 6회 유격수 뜬공, 8회 1루수 땅볼을 쳐 더그아웃으로 향했다.

배지환은 4타수 1안타(1홈런) 2타점을 기록해 타율 0.214(14타수 3안타)가 됐다.

피츠버그는 보스턴을 4-1로 꺾었다. /뉴시스

## 축구인 ‘기습 사면’ 내역 공개

금전비리·폭력·실기부정 등

이사회 총사퇴를 부른 대한축구협회의 축구인 100명 기습 사면과 관련해 사면대상에 포함됐던 이들은 승부조작 외에 금전비리와 폭력, 실기테스트 부정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이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경(부산 해운대구갑)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일 이밖에 논란이 된 축구인 사면 대상자 명단을 입수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사면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징계 사유 등은 당초 협회가 비공개로 삼았던 내용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비위 축구인 100명을 기습 사면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전격 입수했다. 승부조작 관련자 48명 외에도 금전 비리, 폭력 행위 등 제명·무기한자징정지를 받은 인원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의원이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면 대상자 목록에 따르면, 승부조작 관련자 48명 외에 금전 비리 8명, 선수·심판에 대한 폭력 5명, 실기테스트 부정행위 4명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지난달 28일 한국과 우루과이의 평가전을 앞두고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했다. /뉴시스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